



## 토토

TOT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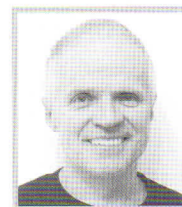
고향 이탈리아를 떠나 오스트리아로 이민간 토토는 고향으로 기차 여행을 떠난다. 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노스탤지어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그의 삶에 놓친 무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막연한 그리움의 실체를 찾기 위해 그는 칼라브리아로 향한다. 고향에서 옛 지인을 만나고, 마을을 돌아보고, 바닷가를 찾아가며, 삶의 흔적과 세월을 마주한다. 페터 슈라이너 감독은 토토의 의식과 감정을 카메라에 담아낸다. 인물 다큐멘터리의 전기적 기록 대신 감독은 토토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을 서정적인 다큐멘터리로 구현한다. <토토>에서 토토의 내레이션과 이미지, 사운드는 의식의 흐름처럼 조직되어 있다. 정적이고 사색적인 흑백 화면은 토토의 감정과 사고를 형상화 한다. 그리고 토토의 익스트림 클로즈업 쇼트는 인물 내면의 독백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이런 쇼트와 숨소리만이 들리는 사운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변화하는 의식의 연속성을 은유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상념, 그리고 그리움의 실체와 잊고 지낸 어떤 것에 대한 물음은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과 맞닿아 있다. 이것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환원될 수 있지만, 결코 진부하거나 단순하지 않은 어떤 감성적 깨달음을 인식하는 여정으로 보여준다. 그 여정은 절제와 압축의 미로 만들어진 서정시로 펼쳐진다. (함주리)

Having left Italy and settled down in Austria, Totó takes a train trip to his hometown. He is longing for something inexplicable. He goes to Calabria in order to find the substance of his vague longing and a solution for something he left behind in his life. In his hometown, he comes to face the traces of life by encountering his old acquaintances, looking around the town and visiting the beach. Instead of recording it in a biographical way, the director Peter Schreiner, captures his emotion and psychology, and embodies what Totó feels and thinks as an emotional documentary on screen. In *Totó*, his narration, image and sound are organized well like the flow of consciousness. The contemplatively still black & white screen visualizes Totó's emotion and thoughts, while the extreme close-shots visually describe his inner monologue and the sound of breathing metaphors the continuity of consciousness. Contemplation on life and death, the substance of longing and reflecting on something we have forgotten, lead to the fundamental question of our existence. Although it can be replaced by a simple question like what the meaning of life is, this film delivers his journey as something to be recognized, and a sentimental realization. The journey unfolds a sentimental poem written with the beauty of brevity and self-control. (Ham Ju-ri)

AUSTRIA | 2009 | 128MIN | 35MM | B&W

ASIAN PREMIERE

Director, Screenwriter, Cinematographer, Editor  
Peter Schreiner  
Producer Gerhard Kastler



PETER SCHREINER 페터 슈라이너

1957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생. 비엔나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하고 1982년부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오고 있다. 주로 16mm 필름으로 작업하며, 대표작으로 <Erste Liebe>(1983), <Kinderfilm>(1985), <Bellavista>(2006) 등이 있다.

Born in 1957, Vienna, Austria. He studied at Vienna's Film Academy and has made documentary films since 1982. His major works are *Erste Liebe* (1983), *Kinderfilm* (1985), *Bellavista* (2006), and etc.

### FILMOGRAPHY

Bellavista (2006)  
Blaue Ferne (1994)  
I Cimbri (1991)  
Auf dem Weg (1988)  
Grelles Licht (1982)